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과 가족탄력성의 관계

윤숙자*, 김희정**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The relation between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Yoon Suk Ja*, Kim Hee Jeong**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yeongju University*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과 가족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탄력성의 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과의 차이,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탄력성 하위요인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의 차이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연령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간 차이에서 가족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가족탄력성, 부모-자녀 의사소통, 대학생, 의사소통, 관계

Abstract This study attempt to explore relation between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resilience objects to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we study a difference of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 relation between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In difference of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Dialogue time with father, age, and dialogue time with mother are significant. Also, in difference of between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ore monthly income of family, the longer time of dialogue with parents, family resilience is high.

Key Words : family resilience,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university students.

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필요한 성장을 위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가정

과 가족구성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가족구성원 개개인 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내면화시키고 인성을 발달시킨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산업화·도시집중화·정보화 등의

Received 15 June 2013, Revised 8 July 2013

Accepted 20 August 2013

Corresponding Author: Kim Hee Jeong(Gyungwoon University)

Email: lighting8624@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사회로부터 유입된 외래문화의 도입으로 가정의 구조와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과거에는 자녀가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가족구조가 현대에 이르러 민주적·개방적 의식이 강조됨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던 부분들이 부모-자녀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2]. 청소년기는 자신의 독립적 자아를 탐색해가는 시기여서 부모-자녀간 대화가 점점 축소되고 세대간 의견 차이도 심화되므로 가족생활 발달단계상 가족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 기존 생활방식으로부터의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재적응이 요구된다. 또한 질적으로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로 진입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더욱 요구된다. 부모-자녀 관계는 언어적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을 통해 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2]. Barns 와 Olson(1985)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형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방해한다고 했다[8].

이때 가정 내에서 새로운 방향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의 관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6].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공부, 시험,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으며 이로 인해 편협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후 성인기로 진입하는 대학생들은 이전까지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 우울·불안·좌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7].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기존 생활방식으로부터의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서의 재적응을 요구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들로부터 이탈하고 분리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혹감이나 가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때 가족원 간의

밀접한 유대감을 지속하는 일과 가족원의 변화하는 관계와 욕구에 대한 적응능력이 요구된다. 김민경(2012)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편안하고 유대감 있는 가족 안에서 대학생은 자신의 문제해결과 대처능력, 자존감 등을 키워나가는 토양을 얻는다고 했다[11].

가족탄력성 접근은 강점에 기반을 두고 가족을 조망하며 고위험에 처한 가족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4]. 정상 이외의 가족을 병리화하는 편견을 지적하고 가족의 형태보다는 가족관계 측면을 강조하여 연구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10]. Sixbey는 가족탄력성을 위기나 도전을 경험한 후에 활동적으로 되돌아오는 가족의 능력, 삶의 도전에 맞서 좀더 강해지고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가족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된 가족은 단순히 살아남는대거나 관리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성장·변영할 수 있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9].

Walsh(2002)는 가족탄력성을 가족과정 안에서 이해하며 구조적 측면과 더불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역동적 가족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9]. 가족탄력성은 역기능적 가족에 대한 시각을 심각한 위험이나 회복되기 어려운 가족으로 보지 않고 성장과 잠재력을 가진 가족으로 본다. 탄력적이고 건강한 가정이란 상처 입지 않거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의 대처와 해결능력을 가진 가족이며, 가족이 역경에 대응함으로써 위기와 도전을 다루는 능력이 점차 강화된다고 믿는 것이다[1]. 가족 내 관계와 역동으로 표현되는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위기가 높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구성원이 어떻게 잘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을 가족이 당면한 위기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 역경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가족의 내적인 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Sixbey(2005)의 이론에 기초하여 가족탄력성 요인으로서 가족간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활용, 긍정적인 시각의 유지, 가족간의 유대(연결성), 가족의 영성, 역경에 관한 의미부여능력을 포함하였다. 또한 질적으로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로 진입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더욱 요구된다. 부모-자녀 관계는 언어적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을 통해 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2].

지금까지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조사한 연구는 있으나 대학생 대상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을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태도와 부모-자녀 관계가 그들의 자아확립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대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부모의 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상황에 있기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는데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정의에서 밝혔듯이, 정상으로 기능하는 건강한 가족보다는 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의 대처능력과 적응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문제를 경험하는 가족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입시 및 교육환경을 지나 성인기에 진입한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과 가족탄력성의 일반적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북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가족기능을 위해 의사소통과 가족탄력성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과 가족탄력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탄력성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경북지역에 소재한 G시와 K시 2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316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사전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3년 3월 5일에서 4월 2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행해졌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자녀 의사소통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는 Barnes와 Olson(1985)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8]로서 이 척도는 국내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 척도는 가족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각각 10문항씩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채점방식은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항에 대한 전체 점수는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에 대한 항목을 역코딩 한 후에 이를 개방형 의사소통에 대한 점수와 더하여 전체 문항의 수로 나눔으로써 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보다 개방적이고 문제성이 적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보다 폐쇄적이며 문제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한 신뢰도(계수)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878,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865,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900으로 나타났다.

2.2.2 가족탄력성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는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개념을 토대로 Sixbey(2005)가 개발한 가족탄력성 평가척도(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 FRAS)를 사용하였다. FRAS는 Walsh의 가족탄력성의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 등 3개 영역 총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66개 문항 가운데 Sixbey(2005)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 54개 항목을 연구에 사용하였는데 54개 항목 전체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926이며, 이 54개 항목을 6개의 하위요인으로 영역을 분류하여 구한 신뢰도계수는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27개 항목으로 구성)은 .943,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활용(8개 항목으로 구성)은 .783, 긍정적 시각의 유지(6개 항목으로 구성)은 .671, 가족간의 유대(혹은 연결성)(6개 항목으로 구성)는 -.217, 가족의 영성(4개 항목으로 구성)은 .842, 역경에 관한 의미부여 능력(3개 항목으로 구성)은 .383이다.

2.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정도와 가족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3. 조사결과 및 분석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186명(58.9%), 여자가 130명(41.1%)으로 남자의 비중이 더 크고, 연령별로는 주로 신입생을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20세 미만이 118명(37.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21세, 22-23세, 24-25세, 26세 순이다.

종교를 보면 무교가 161명(50.9%)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이다. 가족구성형태는 양친가구가 286명(90.5%)으로 대부분이며 한부모가구가 28명, 조손 및 시설거주가 각 1명이다. 월소득을 보면 2-300만원 미만인 103명(32.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3-4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4-5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원수의 경우 4인가구가 183명(57.9%)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5인 이상, 3인 이하 순이다. 아버지와의 1일 대화시간을 보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미응답한 15명을 제외하면 30분 미만이 174명(55.1%)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와의

1일 대화시간도 어머니의 사망으로 미응답한 2명을 제외하면 30분 미만이 120명(38.0%)으로 가장 많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30분 미만으로 짧게 나타났다.

3.2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와 가족탄력성의 일반적 경향

<Table 1>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PAC)를 보면 최소 89점에서 최대 190점까지 분포하며, 평균 139.6점으로 나타나고, 아버지(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FAC)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정도(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MAC)를 비교해 보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72.7)이 아버지(66.8)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1>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Categories	PAC	FAC	MAC
Mean	139.67	66.86	72.78
SD	20.33	12.62	11.58
Min.	89.00	32.00	42.00
Max.	190.00	97.00	97.00

<Table 2>에서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FR)에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가족탄력성은 최소 68점에서 최고 203점까지 분포하며 평균 153.65점이다. 의사소통과 문제해결(Family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FR1)의 경우 평균 80.26, 사회·경제적 자원활용(Utilizing Social and Economic Resources: FR2)의 경우 21.82, 긍정적 시각의 유지(Maintaining Positive Outlook: FR3)의 경우 17.93, 가족간 유대(Family Connectedness: FR4)의 경우 15.56, 가족의 영성(Family Spirituality: FR5)의 경우 9.44,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Ability to Make Meaning of Adversity: FR6)의 경우 8.60점으로 나타났다.

(Tale 2) Family Resilience and Sub-Factors

Categories	FR	FR1	FR2	FR3	FR4	FR5	FR6
Mean	153.65	80.26	21.82	17.93	15.56	9.44	8.60
SD	17.50	11.46	3.68	2.84	1.55	3.20	1.37
Min.	68.00	27.00	8.00	6.00	10.00	4.00	5.00
Max.	203.00	108.00	32.00	42.00	20.00	16.00	12.00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 의사소통 차이

<Table 3>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를 검정한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정도는 아버지(p=.000)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p=.003)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화시간이 길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연령(p=.020)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p=.013)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Table 3) a difference of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C			MAC		
		M	SD	p	M	SD	p
age	20 under	65.98	12.99	.774	71.94	10.92	.020*
	20-21	66.37	12.76		74.33	13.11	
	22-23	68.47	12.92		75.45	11.40	
	24-25	67.21	12.20		70.89	11.32	
	26 over	67.30	8.63		66.00	7.26	
dialogue time with dad	30m under	64.06	12.93	.000**	72.37	11.69	.462
	30-1h under	70.13	9.60		73.50	11.41	
	1-2h under	68.88	9.14		71.38	10.00	
	2-3h under	74.91	14.39		75.91	14.41	
	3h over	81.57	15.30		78.57	14.53	
dialogue time with mom	30m under	64.12	11.81	.003**	70.68	11.37	.013*
	30-1h under	67.53	12.72		72.32	10.94	
	1-2h under	66.71	12.60		74.29	10.95	
	2-3h under	72.04	10.68		74.90	14.08	
	3h over	73.77	14.73		78.87	11.92	

*p<.05, **p<.01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 하 위요인별 차이

<Table 4>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FR1), 사회경제적 자원활용(FR2)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먼저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에서는 월소득(p=.016)이 많을수록, 그리고 아버지(p=.000)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p=.005)이 길수록 가족탄력성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경제적 자원활용에 대해서는 종교(p=.045)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종교없음 순으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p=.006)이 길수록 가족탄력성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Table 4) a difference of Family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FR1) and Utilizing Social and Economic Resources(FR2)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1			FR2		
		M	SD	p	M	SD	p
Religion	nothing	79.25	11.22	.454	21.31	3.61	.045*
	Buddhism	81.27	11.53		22.07	3.56	
	Protestant	81.60	10.95		22.87	3.67	
	Catholicism	80.77	15.53		22.77	4.82	
monthly income	100under	79.28	11.12	.016*	22.06	3.47	.080
	100-200under	76.91	12.99		21.34	4.08	
	200-300under	78.46	11.08		21.09	3.74	
	300-400under	82.67	9.71		22.38	3.87	
	400-500under	81.84	11.10		22.26	2.65	
	500 over	83.28	12.03		22.69	3.39	
dialogue time with dad	30m under	77.99	11.98	.000**	21.31	3.80	.006*
	30-1h under	82.22	9.52		22.64	3.05	
	1-2h under	81.64	9.73		21.64	4.07	
	2-3h under	91.75	9.13		24.25	3.02	
	3h over	90.86	15.45		23.86	2.73	
dialogue time with mom	30m under	78.27	10.62	.005**	21.80	3.38	.504
	30-1h under	79.80	12.82		21.59	3.80	
	1-2h under	80.88	9.82		21.78	4.36	
	2-3h under	84.27	11.99		23.18	3.22	
	3h over	86.92	11.98		21.83	2.99	

*p<.05, **p<.01

<Table 5> a difference of Maintaining Positive Outlook(FR3) and Family Spirituality(FR5)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3			FR5		
		M	SD	p	M	SD	p
Religion	nothing	17.68	2.27	.413	150.19	16.41	.003**
	Buddhism	18.20	3.68		156.33	17.11	
	Protestant	18.29	2.47		159.42	17.50	
	Catholicism	18.08	3.25		156.62	25.27	
monthly income	100under	17.22	2.92	.116	152.72	18.71	.012*
	100-200under	17.38	2.84		148.87	20.09	
	200-300under	17.61	2.57		150.41	17.09	
	300-400under	18.44	2.21		157.63	14.96	
	400-500under	18.48	4.87		156.61	17.03	
500 over	18.39	2.24	157.98	16.95			
dialogue time with dad	30m under	17.53	2.63	.000**	150.25	18.08	.000**
	30-1h under	17.99	2.00		156.38	15.14	
	1-2h under	17.92	2.31		154.25	14.30	
	2-3h under	21.92	6.71		174.08	15.76	
	3h over	20.43	2.70		168.57	22.88	
dialogue time with mom	30m under	17.58	2.37	.003**	151.57	16.39	.024*
	30-1h under	17.72	2.52		151.99	18.87	
	1-2h under	17.92	2.50		154.63	16.07	
	2-3h under	18.59	2.99		160.82	17.92	
	3h over	19.96	5.20		161.50	18.63	

*p<.05, **p<.0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긍정적 시각(FR3)과 가족의 영성(FR5)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정한 결과를 보면 <table 5>와 같다.

먼저 긍정적 시각에서는 아버지(p=.000)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p=.003)이 길수록 가족탄력성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의 영성에서는 종교(p=.003)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무교 순, 그리고 월소득(p=.012)은 비교적 많을수록, 그리고 아버지(p=.000)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p=.024)이 길수록 가족탄력성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간 유대(FR4) 및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FR6)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요인은 없었다.

3.5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와 가족탄력성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와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of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FAC) and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categories	FAC	FR1	FR2	FR3	FR4	FR5	FR6
FAC	1						
FR1	.548**	1					
FR2	.168**	.537**	1				
FR3	.427**	.750**	.352**	1			
FR4	.149**	-.047	-.140*	-.043	1		
FR5	-.018	.145**	.352**	.198**	-.068	1	
FR6	.202**	.410**	.239**	.385**	-.088	.112*	1

*p<.05, **p<.01

먼저,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와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긍정적 시각,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 사회·경제적 자원활용도, 가족간 유대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이 높고(.548), 긍정적 시각을 가지며(.427),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이 높고(.202), 사회·경제적 자원활용도가 높으며(.168), 가족간 유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149).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과 사회·경제적 자원활용도,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 가족영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750), 사회·경제적 자원활용도가 높으며(.427),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이 높고(.410), 가족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5).

사회·경제적 자원활용과 긍정적 시각과 가족영성,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가족간 유대와와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자원활용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시각을 가지며(.352), 가족영성이 높고(.352),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이 높으며(.239), 가족 간 유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0).

긍정적 시각과 가족영성,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시각을 가질수록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이 높고(.358), 가족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8). 그리고 가족의 영성과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2).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와 가족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탄력성의 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과의 차이,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탄력성 하위요인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연령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대화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진로문제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22-23세의 경우 어머니와 가장 많은 대화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희선 외(2011), 이지미(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연구한 결과에서 보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보다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5].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간 차이에서 가족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가 없어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길

수록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대학생이 되면 이전의 중·고등학생 시기에 비해 학업, 취업 그리고 이성관계 등의 문제로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월소득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주로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김미옥(2001), 김혜림(2006), 최현정(2007), 장용주(2008), 이상미(2009), 정무순 외(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5]. 연구대상은 차이가 있지만 대학생들 자녀로 두고 있는 가족의 경우도 학비와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소득이 많은 가정일수록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선정에서 확률표출방법이 아닌 비확률표출 가운데 판단표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로 대학생 가운데 저학년이 치중하게 되었고 이는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고르게 한 다음 그 결과를 비교한다면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탄력성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족구성형태의 경우도 대부분 양친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가족구성형태 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분포를 비교적 고르게 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탄력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을 추후 연구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E. H. Kim, S. K. Yoo,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35, pp.145-171, 2012.
- [2] Y. S. Lee, J. O. Kim,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ype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7, no.2, 133-159, 2002.
- [3] J. M. Lee, Effects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ego-resiliency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mirae-youth, vol.8, no.4, pp.97-120, 2011.

- [4] H. N. Lee, Case Intervention of return to society for probation youth, Case Study of Social Welfare Agency Case Study, vol.17, pp.1-18, 2005.
- [5] H. S. Lee, H. J. Sunwoo,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ommunication style & stress coping styles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9, no.6, pp.109-122, 2011.
- [6] Y. H. Jung, J. S. Ryoo, H. S. Shin Hyo-Shik,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Variables 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17, no.2, pp.145-158, 2005
- [7] A. N. Hyun, S. J. Yo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college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2, pp.403-428, 2012.
- [8] Bams, H. L. and Olson, D. H.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pp.438-447, 1985
- [9] Sixbey, Meggen Tucker. Development of the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 to identify family resilience constructs, Gainesville, Fla. : University of Florida, 2005.
- [10] Walsh, F. A family resilience frame- 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 130-137.
- [11] M. K. Kim.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s, Family Resilience,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7, no.1, pp.61-83, 2012

윤 숙 자(Yoon, Suk Ja)



- 1988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
- 1997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실천 등
 · E-Mail : yoonsj@gnu.ac.kr

김 희 정(Kim, Hee Jeong)



- 1994년 2월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97년 2월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0년 2월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박사과정 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

· 관심분야 : 경찰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재정 등
 · E-Mail : lighting8624@hanmail.net